

2024 Vol.19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www.uispc.org



C O N T E N T 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4 Vol.19

발행일 | 2024. 06. 30.

발행인 |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210호

TEL. (051)510-7905 FAX. (051)510-1118

E-mail. uispc@pusan.ac.kr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4 소규모 대학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_ 권경만

성과사례

- 08 (I-DESIGN), 학생 스스로 전공을 탐색하고 설계하다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운영팀 사원_ 김한성
- 12 러닝메이트 Tu-together 프로그램
남부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원_ 김진영
- 16 단국대학교, 경계를 넘어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Young熊 Stroy 구축
단국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 연구교수_ 김난옥
- 20 KBS와 협업, 실시간 기후 변화와 침수 재난 재현 3D 시뮬레이션 제작
동서대학교 문화콘텐츠가상기술연구소 소장_ 조승우
- 24 민석교양대학, EBS와 공동 온라인콘텐츠 개발
- 민석교양대학 신규 온라인 강좌, 수업 혁신의 새 지평을 열다 -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연구원_ 문지원
- 28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동아굿즈(GOODS)'와 '동아뮤즈(MUSE)' 프로젝트 운영
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일반직7급_ 남승덕
- 32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
인천가톨릭대학교 학사지원팀 담당_ 김주혜
- 36 포스테키안을 위한 360° 밀착형 멘토링 시스템
- 분반 지도교수/SA, RC제도, SMP 프로그램
포항공과대학교 입학학생처 무은재학부 행정팀 연구원_ 손소희
- 40 "소통형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차장_ 한가숙



20

44 나만을 위한 맞춤형 운동 파트너! 한림대학교 Digital Gym

한림대학교 체육학과 / 한림 REC 센터 조교수 / 센터장_한승백

48 대학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정량지표의 발굴과 활용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운영)

한성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연구교수_이규재



28

52 K-프로젝트 “모두가 걷고 싶은 보행환경 만들기”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4학년_김시현

56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광고홍보학과 4학년_성민재

60 학생의 성장을 위한 서포터즈 ‘유니콘’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학생_원소정

64 자기주도학습, 혼자서는 어렵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_김희진



44

행사소식

68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움 “용인시 SMART WELFAR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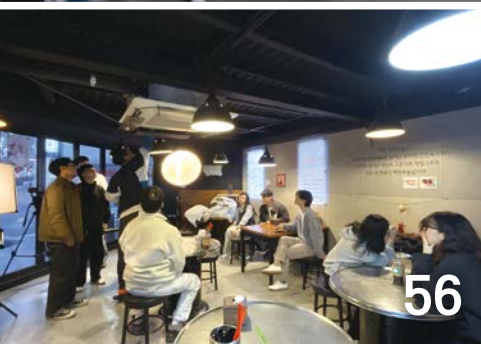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합연구소 교수_박소임

72 2024-1 숙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단 부스 참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_문정은

74 조선대 박물관 상설전시 ‘박물관, 과거를 엿다’ 개막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_김지희



56

소규모 대학에 대한 소고(小考)¹⁾



권경만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등으로 인해 일선 대학들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강도 높은 고등교육정책 추진의 장(場)에서 소위 체급이 작은 소규모 대학은 제한된 자원 범위 내에서 대·중규모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대학의 최초 설립 목적 등 고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4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이 184개교(분교, 캠퍼스 개별 인정 시 210개교), 사이버 대학 17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산업대학 2개교, 각종학교(대학) 2개교, 기술대학 1개교, 방송통신대학 1개교가 있다. 총 184개 대학을 4천명 단위로 구분했을 때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은 각각 77개, 44개, 63개교로 소규모 대학이 3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63개 소규모 대학 중 종교계열 대학은 37개교, 예체능 계열 대학은 6개로 68.3%의 대학이 일반적인 대학과는 차별되는 특수목적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도 연구자나 정책설계자의 일방적인 분류기준일 뿐 현재 소규모 대학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대학평가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입학정원 혹은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중규모·소규모 대학이라는 일반적 구분이 존재할 뿐이다.

소규모 대학은 1996년도부터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위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소규모 대학은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한국 고등교육 유형의 다양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공립을 제외한 소규모 사립대학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는 종교계열 대학이 많고, 이러한 교육목적용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봉사과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와 연계하여 지역 복지, 상담, 보육 분야에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 소규모 대학은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맞추고자 강연을 개최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비수도권대학의 경우 특정학과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역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본 원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소규모 대학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개선방안 연구'(2024.1.)에서 일부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한동대의 경우 소규모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 간, 동료 학생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와 혁신적인 교육모델로 학부 교육의 선도적인 성공 사례를 창출하였다. 미국의 올린공과대(Olin College of Engineering), 뱁슨칼리지(Babson College), 서던뉴햄프셔대(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와 같은 소규모 사립대학의 위기 극복 사례와 일본의 소규모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 경우처럼 사립대 경상비 지원 정책을 통해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는 국내 소규모 대학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처럼 소규모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부 중심의 교육을 수행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종교인 양성,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문화예술인 양성 등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대학이 정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폐교된다면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지역 소멸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자명하다.

이상과 같이 소규모 대학이 지역의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과 명문대가 하지 못하는 학부 교육을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소규모 대학이 처한 문제를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관점에서 김도연 울산대 이사장(前 포스텍 총장)의 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국내 대학의 80%가 사립대인데 이대로 두면 다 망한다. 이렇게 사립대학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일본은 조그만 대학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생존할까. 작지만 구조조정도 하고 패러다임도 바꾸고 한다. 일본 대학은 교수 급여의 절반을 국가가 대준다. 우리나라도 공립이든 사립이든 중·고등학교 교사들 급여는 100% 대주는데 이미 보편화된 대학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 재정이 대학 발전의 전부는 아니지만 재정이 어려운데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략)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대학이 존립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국내 명문대들은 연구로 그 위치에 있는 대학이지 학부 교육을 잘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다. 학부 교육을 잘하는 조그만 대학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지방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서울경제, 2022.11.15.)²⁾

4년제 대학 중에서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개교한 후발대학, 특히 소규모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규모 대학은 현재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체제와 같은 정책 환경에서는 사업 수주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고등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였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지역의 강소대학을 위한 특정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수도권 소규모 대학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 후 120대 국정과제 중 대표적인 성과를 30대 핵심성과로 발표하였으나 고등교육과 관련된 특별한 성과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고등교육정책 중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을 규모로 구분하여 설계한 정책내용은 찾기 어려우며, 일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지원 사업들의 경우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 걸쳐 시행되어 온 고등교육정책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라는 구분만을 고려한 관리 혹은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는

2) 서울경제(2022.11.15.). '[전문가 특별 대담] "대학 경쟁력은 국가 존망과 직결 ... 혁신 전제로 지원 대폭 늘려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MXVCRGG>에서 2023.11.30.에 인출.

경우를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대학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포물러 펀딩 방식으로 국고지원의 기회를 봉쇄당했다는 비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재정지원정책은 물론 2015년부터 시작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2018년과 2021년에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로 실시)와 대학기관평가인증 또한 정책설계와 정책집행 과정에서 소규모 대학이 갖는 태생적 어려움인 규모의 한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이같은 동일한 정책적 오차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평가 등 교육정책 설계 시 소규모 대학을 소외시키는 우(愚)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대학만이 특징적으로 창출해 온 교육적 성과와 프로그램(예컨대, 교수와 학생 간 긴밀한 학업적·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공유·확산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아 우수한 인재로 내보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소규모 대학은 교육중심의 대학이며 실력이 좋은 나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 연구보다는 교육을 더 우선시하며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소규모 대학이야말로 미래인재 육성에 더 부합한 대학기관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I-DESIGN>, 학생 스스로 전공을 탐색하고 설계하다



김한성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운영팀
사원

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진로특화 <DESIGNer 학년제> 신설

가톨릭대학교는 광역단위 모집, 자유전공학과 정원 확대 등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강화 혁신에 따라 신입생의 재학초기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자 <DESIGNer 학년제>를 신설하였다. 1학년 1학기 전공탐색 중심의 <I-DESIGN> 학기, 1학년 2학기 진로설계 중심의 <Career DESIGN>으로 구성된 <DESIGNer 학년제>는 24학년도 1학기 전면 시행 중에 있다.

<I-DESIGN> 교과는 1학년 1학기 <I-DESIGN> 학기의 중심점이 되는 교과목으로 신입생의 기초소양 함양과 전공탐색을 위해 설계되었다. 신입생들은 본교에서 선정한 명저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고등사고역량과 인성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자기주도 전공탐색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AI 스마트통합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장기적인 진로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I-DESIGN> 학기를 위해 <I-DESIGN> 교과 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 '나를 찾는 학기 Festival' 연계, 전임교원 중심의 DESIGN Advisor 지원, 첨단 스마트 강의실 ALC(Active Learning Classroom) 구축 등 신입생의 효과적인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전임교원 중심의 신입생 진로 지원 DESIGN Advisor 확보

DESIGN Advisor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임교원으로, 1학기 <I-DESIGN> 교과, 2학기 <Career DESIGN>을 담당한다. 2024-1학기 기준으로 17개 학과, 총 32명의 교원이 참여하여 신입생 약 1,600명을 지도하고 있다. DESIGN Advisor들이 함께 교과목의 설계와 운영 성과를 논의하고 교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4회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사이버캠퍼스 내 <DESIGN Advisor 교수 campus>를 개설하여 교안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 (I-DESIGN) 교과목 구성

모듈명		시간	내용
모듈1	명저 읽기 토론	23h	가톨릭대학교 명저 중 담당 DESIGN Advisor가 선택한 2~3권의 도서를 활용한 독서 및 토론
모듈2	공동프로젝트	8h	선택한 또는 희망하는 전공 및 진로에 대해 신입생이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공동프로젝트
모듈3	프로젝트 모니터링	8h	프로젝트에 대한 DESIGN Advisor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모듈4	특강	4h	〈I-DESIGN〉 특강, 생태환경 특강, 나를 찾는 학기 Festival 부스 면담
모듈5	진로로드맵 탑재	2h	시스마트통합지원시스템 내 진로로드맵 탑재



▲ 〈I-DESIGN〉 특강 사진



▲ 나를 찾는 학기 Festival 행사사진

▮ <I-DESIGN> 교과목 전용 첨단 스마트 강의실 ALC(Active Learning Classroom) 구축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자료수집과 분류, 성과도출을 위한 각종 스마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교는 최첨단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였다.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동형 책상, 각 팀마다 프로젝트 성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리된 협업 공간 등을 갖춘 강의실을 완공하여 희망 전공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함께 나누며 집단지성을 발현하는 경험을 창출한다.



▲ 첨단 스마트 강의실 ALC



▲ 첨단 스마트 강의실 ALC

▮ **〈Career DESIGN〉 교과목 설계를 통한 지속적 자기탐색 기회 창출**

1학년 1학기 〈I-DESIGN〉 교과목에 이어 1학년 2학기에는 〈DESIGNer 학년제〉의 또 다른 교과인 〈Career DESIGN〉을 운영할 예정이다. 〈Career DESIGN〉 교과목은 DESIGN Advisor가 선정한 인문학/자연과학/공학/문화예술 분야의 세부 주제에 대한 명강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기초소양 함양을 지원한다. 또한 전공탐색에서 나아가,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자격증, 현장실습, 외부활동 등 본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학생 주도의 진로설계를 유도한다.

가톨릭대학교는 이러한 자기주도적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한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윤리적 리더” 인재를 양성하고 전공선택권 강화라는 대학사회 변화에 맞는 선도 교육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러닝메이트 Tu-together 프로그램



김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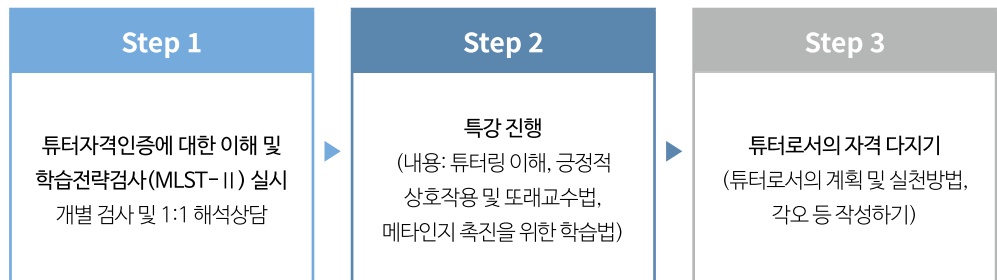
남부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원

추진배경

- ▶ 동료 및 선후배 간 학습경험과 지식공유를 통해 튜터-튜티의 학습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 1:1 팀 운영을 통해 동료 간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 협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 학업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의 학업 불안감을 줄이고 교과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운영 내용

- I.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23학년도 3월 초(운영: 학기제)
- II. 팀모집 및 신청접수 : 홈페이지, 현수막, 찾아가는 설명회, 문자 등 홍보방법 활용
- III. 튜터자격인증프로그램 실시
 - 신청팀 중 튜터에게는 튜터자격 강화를 위한 [Step 1~3]을 이수하도록 함



IV. 튜터 인증자 선발 및 팀선정

- 튜터 인증자 선발기준을 토대로 인증자를 선발하고, 튜터인증자로 선발된 팀에 한하여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학습계획서 등)를 기준으로 팀선정을 진행함

V. 팀 학습모임 운영

- 선발된 팀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5주간 10회 이상의 학습이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계획서를 토대로 진행하도록 함

VI. 팀학습 종료 후 우수팀 선발

- 학습모임 종료 후, 참여팀의 학습성과 포트폴리오를 통해 우수팀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운영 성과

- ▶ 2023학년도 참여팀 및 만족도 결과는 1학기 17팀(34명) 참여, 만족도 4.40점으로 나타났음. 2학기는 13팀(26명) 참여, 만족도 4.71점으로 총 30팀(60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전체 평균은 4.56점으로 나타났음
- ▶ 튜터자격강화를 위한 [Step1~3] 프로그램 운영결과, 총 29명(1학기 16명, 2학기 13명)의 튜터인증자가 양성되어, 학습기간 동안 학습리더자로서의 튜터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였음
- ▶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
 - 검사도구: 남부대학교 학습능력진단(NB-LCT)
 - 문항구성: 5점 척도, 총 37문항 / 영역: 학습동기, 학습행동, 창의성, 문제해결, 자원활용 5개 영역
 - 연구대상: 2023학년도 러닝메이트 참여학생(1학기: 32명 / 2학기: 26명)
 - 자료분석: spss 22.0 대응 t-검증
 - 분석결과

〈표 1.〉 2023학년도 학기별 러닝메이트 Tu-gether 참여자 학습능력 사전/사후 분석

구분		평균	N	표준 편차	t	유의수준
2023-1학기	사전	3.728	32	.6710	-2.229*	.033
	사후	4.103	32	.6210		
2023-2학기	사전	3.880	26	.7136	-3.641**	.001
	사후	4.450	26	.5071		

* $P < .05$, ** $P < .001$

- ➔ 학기별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학습능력(NB-LCT)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2학기 모두 참여 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후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학습능력에 차이가 나타남. 즉, 러닝메이트 Tu-gether 프로그램 참여 후에 참여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음

▶ 참여학생들의 주요 성과(소감문)

- 튜터: 또래 교수자 역할을 통해 전공학습에 대한 심층학습, 규칙적인 학습습관, 학습진행을 위한 사전학습 준비에 따른 예·복습 습관이 형성되었고 학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학업성취감이 향상되었음
- 튜티: 튜티 학습수준에 맞는 1:1 맞춤형 학습으로 학습성취 및 학습동기 유발, 튜터의 효과적인 학습전략 습득을 통해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지니게 되었음

▶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튜터-튜티 간 동시적 학습성장과 함께 동료 간 관계형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임



▲ 튜터자격인증프로그램 수여식



▲ 오리엔테이션 실시

향후 계획

- ▶ 튜터로 학업저성취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학습에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 참여 학과들이 보건의계열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토대로 대학의 다양한 학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 ▶ 학습성취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우수팀의 학습성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성공 사례 공유

러닝메이트 Tu-together 프로그램



▲ 튜터자격인증 프로그램 Step 1 (학습전략 상담)



▲ 모니터링 진행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단국대학교, 경계를 넘어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Young熊 Stroy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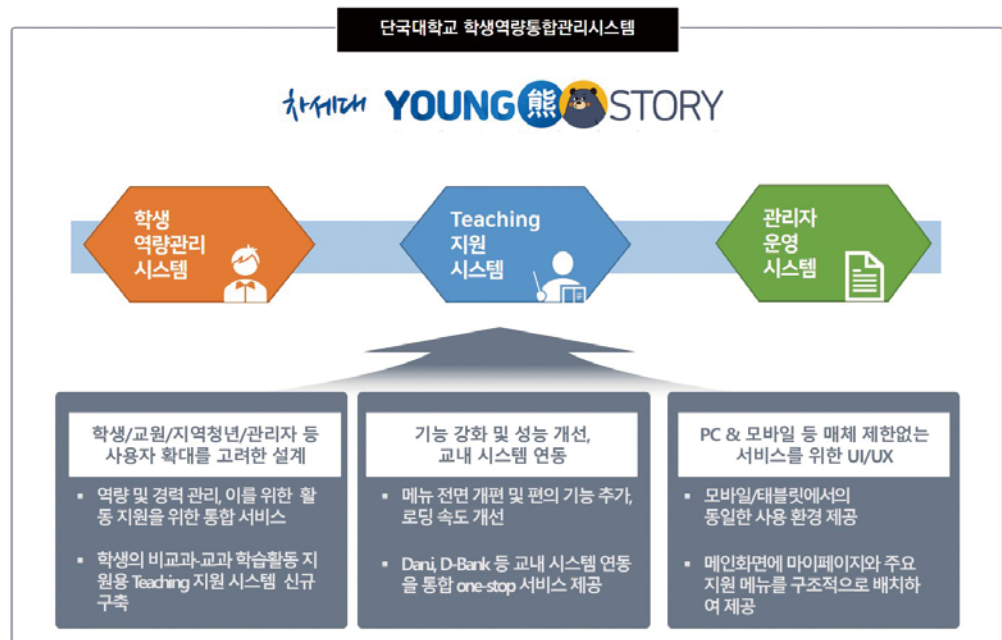


김난옥

단국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
연구교수

단국대는 도전과 창조의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 하에 구성원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하는 무경계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에서는 경계를 넘어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Young熊 Stroy(영웅스토리)’를 구축하였다.

Young熊 Stroy는 학생 스스로 데이터에 기반해 역량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학생역량통합관리플랫폼으로 2017년부터 도입·운영되어왔다. 기존 시스템은 선도적으로 도입된 만큼 학생역량관리를 지원하는 초기 모델로, 사용자 및 사용 매체의 확대, 로딩 속도 등 시스템의 성능개선,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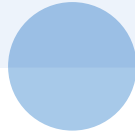


개편 등의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단국대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관련 부서의 요구분석 및 TF팀의 수습 차례에 걸친 협의를 기반으로 재구축하였다. 2024년 2월 새롭게 오픈한 차세대 Young熊 Stroy는 ①반응형웹 디자인 등 최신 UI 적용, ②로딩 속도 및 성능 대폭 개선, ③Dan.i 등 교내 시스템 연동, ④교원 및 조교 사용 지원, ⑤메뉴 개편 및 사용자 고려한 설계, ⑥상담 및 교과활동 지원 기능 강화 등 더욱 강력해진 기능으로 학생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차세대 Young熊 Stroy(영웅스토리)의 학생역량관리시스템은 학생의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 개발·성장을 지원하는 「역량관리시스템」, 진로 및 경력 관련 개발·성장을 지원하는 「경력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역량관리시스템과 경력관리시스템별 메인화면을 별도로 구성하고, 오른쪽 상단의 탭을 이용하여 화면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역량관리와 경력관리 시스템의 메인화면은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설계·배치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메인화면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배치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마이페이지 내역이 제공되는 것과 달리 각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마이페이지를 메인화면에 동시에 배치하여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컨설팅 기능을 추가하고, 외부 진단 검사를 연계하여 영웅스토리 시스템 내에서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로탐색-진로설정-진로검사-로드맵작성] 등 일련의 프로세스에 따른 진로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관심토픽 및 수강이력에 기반하여 교과,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비서 Dan.i 서비스를 연동함으로써 교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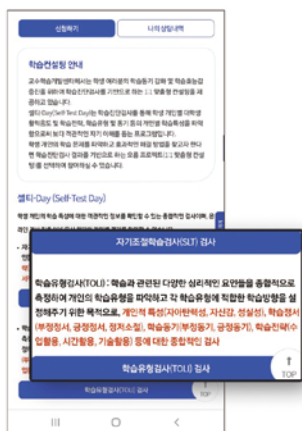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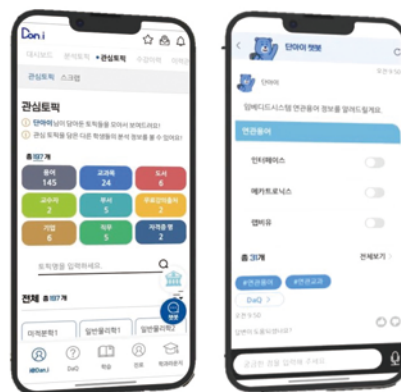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교수(teaching)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수법특강 및 수업컨설팅을 통한 교수역량 개발 지원, 비교과-교과 연계 과목인 Co-curriculum 지원, 팀활동 교과 활동 및 동료평가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환류, 비교과 프로그램의 촉진자로서 교원 및 조교 참여 지원 등 비교과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과 활동 지원 기능도 강화하였다.

‘차세대 Young熊 Stroy(영웅스토리)’는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one-stop 플랫폼으로써 그 위치가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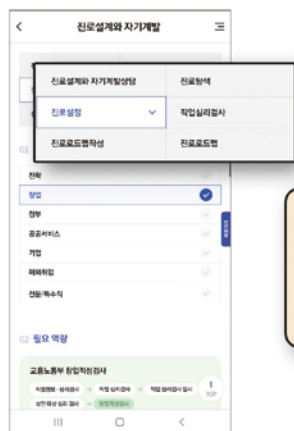


차세대 Young熊 Story 역량관리/ 경력관리 메인화면 및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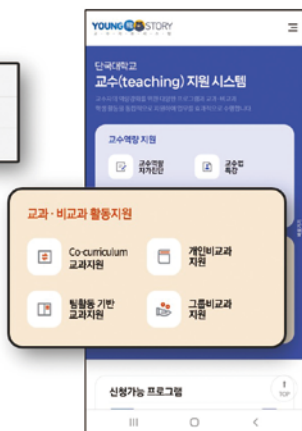
역량관리
경력관리



학생 상담 서비스-검사 실시 연계 및 결과조회 연동



진로설계 서비스-진로탐색-설정-검사-로드맵작성



Teaching 지원시스템 - 주요 서비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KBS와 협업, 실시간 기후 변화와 침수 재난 재현 3D 시뮬레이션 제작

[동서대학교 문화콘텐츠가상기술연구소 조승우 소장 INTERVIEW]



조승우

동서대학교
문화콘텐츠가상기술연구소
소장

실시간 크로마키 활용 특수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 아시아 No1.을 향해~가고 있는 동서대학교.”

그 중심에 가상융합기술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문화콘텐츠가상기술연구소가 있다. 이곳은 언리얼 엔진과 실시간 그린 스크린, 버추얼 프로덕션 시스템인 ‘Aximmetry’을 갖추고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경험을 제공한다.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의 실험작품개발 프로그램 지원으로 최근 대한민국 재난방송센터인 KBS (부산방송총국)와 공동으로 우리 대학의 XR스튜디오를 활용하여 ‘2023년 온천천 침수사레’를 실감형 방송 콘텐츠로 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콘텐츠가상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승우 교수를 서면으로 만났다.

버추얼 프로덕션 활용,
실감형 콘텐츠 제작

부산 KBS와 협업하여
실시간 기후 변화와 침수 재난
재현 3D 시뮬레이션 제작

Q. 추진배경은 무엇인가?

버추얼 프로덕션 시스템은 현재 국내외 다양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작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학생이 실제 제작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어렵다. 이에 미래 영상 제작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나?



▲ XR스튜디오에서 KBS 온천천 침수 사례 방송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실감형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우리 대학에 도입된 언리얼 엔진 연동 실시간 그린 스크린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 시스템인 'Aximmetry'를 활용하여, 지역 방송국인 KBS부산총국과 협력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재난방송센터인 KBS(부산방송총국)와 공동으로 우리 대학의 XR스튜디오를 활용하여 2023년 온천천 침수 사례를 실감형 방송 콘텐츠로 제작한 것이다.

Q.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동서대는 실시간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 현황을 표현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션을 제작했다. 부산 온천천과 온천장역 주변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레퍼런스 촬영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제작 후 언리얼 엔진 최적화를 통해 실시간 기후변화와 침수 상황을 유체 시뮬레이션으로 실감나게 재현하였다.



▲ 조승우 교수(왼쪽)가 학생과 함께 레퍼런스 촬영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제작하고 있다.

KBS와 협업,
실시간 기후 변화와
침수 재난 재현
3D 시뮬레이션
제작



Q.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은?

교내 XR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례로 인프라 구축 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기술 R&D를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수행 과정상 초기에는 공정별로 학생들의 작업 결과물 도출의 속도나 결과물의 퀄리티가 미흡하였다. 하지만 수차례의 진행 회의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향후 기술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R&D 진행 및 참여학생들이 습득한 기술들을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민석교양대학, EBS와 공동 온라인콘텐츠 개발

- 민석교양대학 신규 온라인 강좌, 수업 혁신의 새 지평을 열다 -



문지원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연구원

민석교양대학(학장 박성미)에서는 동서대학교를 대표하는 온라인 교양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대학의 질 높은 교양강좌를 국내외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지난해 4월 동서대-EBS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7월부터 당해 2월까지 8개월간, 3개 교양강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였다.

민석교양대학은 이를 위한 EBS의 고품질 온라인 강의 제작 노하우와 다양한 영상 클립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기술을 도입하여 <공생: 세포에서 사회까지>, <지속가능경영>, <수식 없는 수학> 강좌를 개발·제작하여 고품격 교양교육 콘텐츠를 완성하였다.

공생 :
세포에서 사회까지
박혜영 교수



지속가능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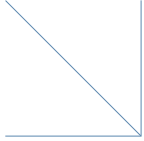
공희숙 교수



수식 없는 수학

이민아 교수





〈공생: 세포에서 사회까지〉

교과(담당: 박혜영 교수)는 자연과 사회의 연속성을 통해 공생과 공존의 개념을 탐구하며, 생물과 인간 간에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성숙한 삶의 전략을 학습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

교과(담당: 공희숙 교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

〈수식 없는 수학〉

교과(담당: 이민아 교수)는 수식이 등장하고 정답을 요구하는 결과에 비중이 둔 학문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수학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수학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

동서대와 EBS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민석교양대학의 브랜드 교양교육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2차 년도 계획에 따르면, EBS와 연계한 교양교육 콘텐츠로 〈동아시아 문명론〉, 〈North Korea's Culture and Society〉,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3개 강좌를 개발·제작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문명론〉

교과(담당: 박수정 교수)는 한, 중, 일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교류 역사와 공통의 문화 요소에 대해 탐구하여 그것이 현재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North Korea's Culture and Society〉

교과(담당: Brian Myers 교수)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북한의 문화와 사회를 중립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이 북한을 이전보다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교과(담당: Sean O'Malley 교수)는 경제 안보를 달성하고 국제 서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다.

민석교양대학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미래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EBS와의 공동 온라인콘텐츠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수자-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민석교양대학 박성미 학장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형 대학으로 혁신을 거듭하기 위한 교양 교과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동서대-EBS 간의 업무협약(MOU)은 우리 대학이 미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유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석교양대학,
EBS와 공동 온라인콘텐츠 개발
민석교양대학 신규
온라인 강좌,
수업 혁신의
새 지평을 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동아굿즈(GOODS)’와 ‘동아뮤즈(MUSE)’ 프로젝트 운영



남승덕

동아대학교
 학예연구과
 일반직7급

추진배경 및 목적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1959년 11월 1일 부산 최초로 개관한 박물관이자 전국 대학박물관 중 가장 많은 국가 및 시·도 지정 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도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주요 부서들이 정책을 수립했던 임시중앙청으로 사용된 만큼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지였다. 학생들이 대학의 문화자원을 단순히 관람을 넘어 어떻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아래 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것은 2022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굿즈(GOODS)’와 ‘동아뮤즈(MUSE)’이다.

추진내용: 동아굿즈(GOODS)

동아굿즈는 ‘박물관 대표 소장품’을 활용하여 20대만의 젊은 감각을 곁들인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공모전은 학생들이 박물관 관람의 문턱을 낮추고 상향식 동아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였다. 석당박물관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일부 학생들과 파일럿(Pilot) 회의로 내실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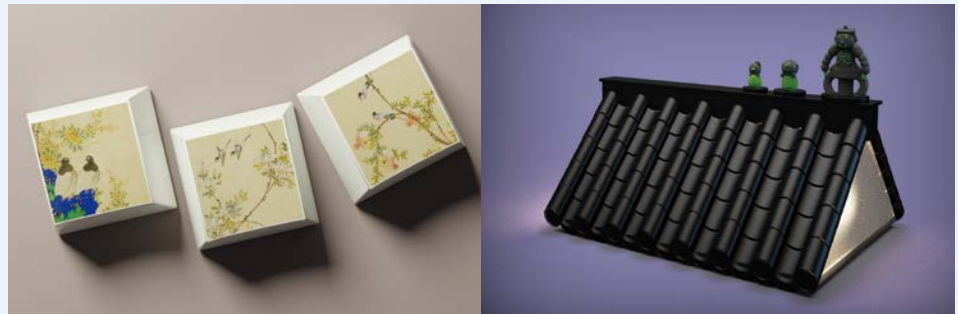
▲ 홍보 포스터



▲ 구글 아트 앤드 컬처(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다졌다. 공모 주제는 '석당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하여 동아대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굿즈 아이디어'였다. 아이디어 형식은 생활소품, 패션잡화, 액세서리, 문구용품, 공예품, 취미용품 등 제한을 최대한 두지 않았고, 학생 개인이 3개 작품 이내로 출품할 수 있게 하였다. 공모전 공고 후, 학생들은 박물관에 직접 오거나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드 컬처(Google Art & Culture)에서 소장품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공모신청 수는 2022년 100건 및 2023년 39건에 도달하였고, 그 종류가 문구사무, 생활소품, 취미용품 등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도전'과 '창의' 역량이 느껴졌다. 소장품의 스토리텔링, 디자인 독창성, 용도와 기능의 실용성, '굿즈'로서의 시장성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굿즈 아이디어를 연도별 10건 내외로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교내·외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추후 실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대표 굿즈 아이디어와 소감을 곁들인 짧은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굿즈명: 화조화 포인트 키캡
- 컴퓨터공학과 김○○
- 아름다운 화조화에 실용성, 희소성, 가격까지 고려했습니다. 특히, 기계식 키보드를 선호하는 20대를 대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 굿즈명: 꿈속으로 날아라 기와보드
- 산업디자인학과 정○○
- 박물관에 가서 본 소장품 중 잡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유기>를 참고하여 꿈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무드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추진내용: 동아뮤즈(MUSE)

동아뮤즈는 박물관 소장품이나 지역 문화를 활용해 자기주도형 문화융합콘텐츠를 제작하는 예비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가 공정한 지역 문화를 누리기 위해 의도하였고, 학생이 참여한 성과물로 지역 장애인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장애인 복지기관과 원활한 업무연계를 할 수 있도록 부산 서구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업무협약을 맺었다.

프로젝트 구성은 '전공별 전문가 진로 특강', '박물관 실무 체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제작 실습' 등 총 15차시로 구성하였다. 참여학생들의 '전문성'과 '인성'을 높이고자 단발성이 아닌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점이 핵심이다. 담당자는 매년 다른 대주제를 제시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알찬 성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한다. 본 결과물로 제1기(2022년)는 '박물관 소장품'을 주제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와 큰글씨 책을 제작하였고, 제2기(2023년)는 '부산 전차'를 주제로 수어를 곁들인 팀별 영상콘텐츠를 공개하였다. 이들은 현재 일반인 대상 박물관 전시 자료와 장애인 대상 시청각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홍보 포스터



▲ 박물관 실무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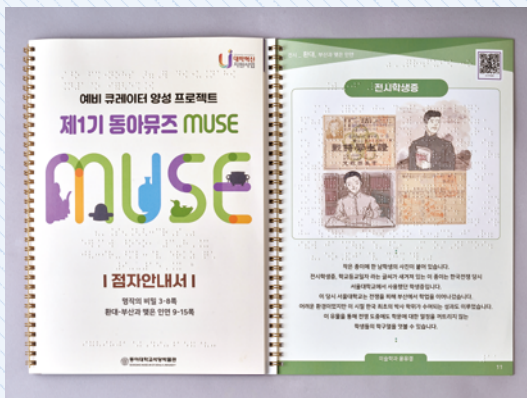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심사 후 선발을 통해 10명 내외로 운영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만족도는 4.94/5점, 지역사회 기여도 5/5점, 성취도 자가평가 결과 4.91/5점에 이른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박물관 수장고를 탐방할 수 있다는 점, 전공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듯하다. 점자 안내서는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부산맹학교 등에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고, '부산 전차' 영상콘텐츠 속 짧은 수어와 쉬운 해설로 박물관에 관람하러 오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로써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지역사회 기여 확장을 위한 대학혁신의 열린 마중물로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자료 활용



▶ 제1기 동아뮤즈: 점자 안내서



▶ 제2기 동아뮤즈: 영상콘텐츠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



김주혜

인천가톨릭대학교
학사지원팀 담당



▲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추진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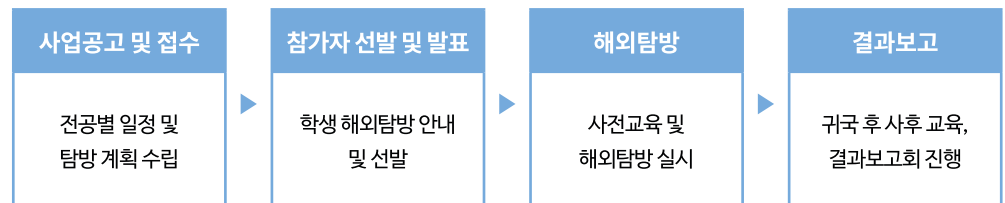
- ▶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종교, 문화예술, 생명을 아우르는 신융합분야 인재를 육성하고자 2021학년도 스테인드클래스템페라 융합전공을 시작으로 2022학년도 바이오헬스디자인 융합전공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 융합전공제도는 기존 특성화 교과목과 대학원 관련 전공역량을 활용하여 개설되었으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융합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신규전공 도입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교육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학습자 주도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교육경험의 질적 향상, 학습자 교육만족도 향상 및 융합능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추진내용

-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역량과 전공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각 전공별 담당 교수님들이 계획한 일정을 바탕으로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1팀, 바이오헬스디자인 1팀의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이 첫발을 내딛었다.

추진절차

- ▶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 운영 절차



[스테인드글라스템페라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탐방 주제	교회미술 재료 연구(스테인드글라스, 템페라/이콘, 프레스코, 모자이크)
탐방 국가	이탈리아(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로마), 스페인(바르셀로나)
참여 인원	14명 - 담당교수 2명, 학부생 10명, 멘토(대학원생) 2명
탐방 기간	2024.1.22.(월) ~ 2.1.(목) [9박 12일]

[바이오헬스디자인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탐방 주제	로스앤젤레스 지역 헬스케어디자인 및 신경건축학 현장 탐방
탐방 국가	미국(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참여 인원	6명 - 담당교수 1명, 학부생 3명, 멘토(대학원생) 2명
탐방 기간	2024.1.22.(월) ~ 1.29.(월) [6박 8일]

추진성과

- ▶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운영 결과 총 20명이 참여하였고, 19명의 인원이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였다.
- ▶ 결과보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참여 학생별로 5분 내외의 탐방 소감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발표에 열의를 보였으며,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열정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 ▶ 이후 시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학생 16명은 모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었으며, 학습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과 동기 및 선후배에게 추천하겠냐는 물음에 100%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하였다.

만족도 질문	평균점수
1. 해외탐방 프로그램이 학습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0
2. 해외탐방 프로그램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88
3. 해외탐방 프로그램 활동에서 자신의 활동 참여도는 높았습니까?	4.94
4. 해외탐방 프로그램에서 팀원 간 협동심과 소속감의 정도는 좋았습니까?	4.81
5. 해외탐방 프로그램에서 지도교수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4.94
6. 해외탐방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 본인의 진로계획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4.94
7.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동기 및 선후배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5.0
8.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4.94
만족도 결과	4.93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 만족도 조사 결과

- ▶ 또한, 높은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융합전공 신규 신청자 수는 2023학년도 11명에서 200% 상승한 22 명으로 융합전공 신청으로의 관심 유도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 ▶ 현재 2차 융합전공 해외학술탐방을 예정 중에 있으며, 담당교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시너지가 되어 지속적으로 더 나은 해외학술탐방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포스테키안을 위한 360° 밀착형 멘토링 시스템

- 분반 지도교수/SA, RC제도, SMP 프로그램



손소희

포항공과대학교
입학학생처 무은재학부
행정팀 연구원

개요

우리 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제도를 도입하여 신입생 전원 단일계열인 '무은재학부'로 입학한다. (2023학년도부터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별도 선발) '무은재(無垠齋)'는 故 김호길 포스텍 초대총장의 호에서 비롯되었으며,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은재학부에서는 단일계열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적응과 자유로운 학과 탐색 기회 보장을 위해 입학과 동시에 분반 지도교수/SA(Student Advisor), 기숙대학 RC(Residential College), SMP(Student Mentoring Program) 등 다양한 교육/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무은재학부생은 희망학과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진 뒤, 자기주도적 학업 전략 수립과 체계적 진로 설계를 통해, 2학년 1학기 종료 후 100% 자율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무은재학부에서 제공하는 포스테키안을 위한 360° 밀착형 멘토링의 주요 프로그램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포스테키안(POSTECHIAN) : 포항공과대학교 구성원을 일컫는 말

프로그램 추진내용

가. 분반 지도교수 및 SA(Student Advisor)

POSTECH 신입생들은 총 15개 분반(25명 내외)으로 편성되며, 각 분반에는 2명의 지도교수와 1명의 SA(Student Advisor)를 배정하여 학교생활 적응, 수강, 전공탐색 및 진로, 교우관계 상담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분반 학생 전원은 학기당 각 2회씩 분반 지도교수 및 SA와의 면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학생지도를 통해 학업·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과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교과목을 통해 기존의 적성·진로탐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제·금융, 과학 커뮤니케이션, 성 가치관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기획·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생 수요에 기반한 희망 분야·유형별 선배와의 만남을 새롭게 기획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장을 마련하였다.

● 대학생들과 미래설계 교과목 운영 (2023~2024)



▲ 선배와의 만남



▲ 과학 커뮤니케이션 특강



▲ 진로·적성검사 워크숍



▲ 무은재학부장 특강

● 지도그룹 운영 (SA, 분반 지도교수)



▲ SA 임명·퇴임식



▲ 무은재학부장-SA 간담회

나. 기숙대학 RC(Residential College) 운영

POSTECH은 2008년에 RC(기숙대학, Residential College)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학부 신입생 전원과 2학년 일부가 RC를 구성하고 있다. 1학년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의무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층별로 총 12개 그룹으로 구성한 후, 각 그룹별로 RA(Residential College Advisor) 2명을 배정하여 상담과 생활지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RC 1층과 11층 공용공간 리노베이션을 통해 RC는 소통, 교류, 문화, 학습, 협업, 체력단련, 휴식 등을 제공하는 co-living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성공적인 리노베이션을 위해 먼저, RC제도를 운영 중인 주요대학(연세대, 한동대)을 방문하여 대학 간 RC 운영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POSTECH RC 교육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후 RA 중심 TF를 구성하여 사생 대상 RC 이노베이션 대회 및 가구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RC 공용공간 사용 예약 기능도 구현하였다. 공사가 시작된 10월 말 이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생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2월 성황리에 리노베이션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3월 중 사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워진 RC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34점(5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변화된 RC 공간을 활용하여 RA의 솔선수범하에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RC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2023학년도 주요 RC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유형	내용
간담회/상담	- 전 사생 RA와의 대화, 수시 상담
층 프로그램	- 층 간담회, 대청소 및 문화의 날, 시험 기간 간식 응원
	- 층별 특색 프로그램: 습관만들기, 요리, 운동, 공예 등
전체행사	- 전통문화 체험, 한·중·일 문화의 이해, 경주월드/대구이월드 체험
등지(취미)활동	- 공예, 보드게임, 베이킹, 쓱쓱(반려식물 키우기), 영화 감상, 클라이밍 등지 등
봉사활동	- 냉록시장(냉장고 베품시장),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 DIY 키트 제작 및 기부
튜터링	- 프로그래밍, 일반화학, 일반물리, 미적분학, 응용선형대수 등 기초과목 튜터링
생활지도	- 표어/포스터 공모전, 분리수거 암행어사
리노베이션 TF 프로그램	-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연계 공용공간 가구 제작 - 공용공간 예약시스템 및 사용 매뉴얼 구축 - RC 공간&편의성 개선을 위한 RC 이노베이션 대회 진행
RA워크숍	- 학생 면담 및 안전 교육, 교외 봉사활동을 통한 리더십 교육 진행

● 2023학년도 RC 1층, 11층 공용공간 리노베이션 결과



▲ 커뮤니티룸



▲ RA 라운지



▲ 시네마룸



▲ 소셜키친



▲ 피트니스룸



▲ 세탁실 & 플레이룸



▲ 워크룸 & 메일룸



▲ 11층 Terrace

다. SMP(Student Mentoring Program)

SMP프로그램은 단일계열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기초필수과목에 대한 멘토링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간의 학문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선후배가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학습내용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활동하며 포스테키안으로서의 친밀감과 협력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2023년에는 총 638명(1학기 356명, 2학기 282명)의 신입생이 멘토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돕기 위해 190명(1학기 101명, 2학기 89명)의 선배들이 멘토로 참여하였다. 멘토들은 신입생들의 기초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 자료 및 강의노트를 제공하고, 연습문제풀이, 퀴즈를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멘티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우수한 활동을 한 멘토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체 멘토의 10% 범위 내에서 Best Mentor를 선발하여 인증서 수여 및 부상을 제공하고 차후 멘토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Best Mentor의 우수교안 공유를 통해 전체 멘토들의 학습지도 능력 강화 등 멘토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 SMP 활동사진



▮ 향후 계획

2024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서와의 컨설팅으로 학생 중심의 멘토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10억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개선된 RC 공간에 대한 학생 주도적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POSTECH RC만의 특화된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RC 이노베이션 대회 운영 정례화를 통해 Openovation Spirit을 고취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도출 및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리노베이션된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작은 음악회, 무비데이, 잡학튜터링, 동지 공유회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

지도그룹(SA, RA)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콘텐츠를 보강하고, SMP 멘토에게는 OT 영상과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내실있는 360° 밀착형 멘토링 과정 운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소통형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한가숙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차장

추진배경 및 운영

인류가 고안한 제도 중 으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도서관”이라고 사서로서 대답할 것이다. 도서관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공의 공간으로 역사에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대학도서관은 학문의 연구와 학생을 위해 교육·학습의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심에 있다. 본교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도서관이 어떻게 소통하며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더 깊게(Deeper), 더 넓게(Broader), 더 높이(Higher)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통형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연계하여 도서관의 과제를 PDCA(Plan-Do-Check-Act)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의 현안문제, 홍보 등을 함께 고민하며 서비스러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며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하고 함께 ‘행복한 도서관 만들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도	프로젝트
2020	- 과제명 : 전공과 연계한 도서관 이용안내 매뉴얼 및 홍보영상 제작 - 세부과제 • 도서관 교육, 학습지원 서비스를 학생이 연구, 분석하여 맞춤형 이용자 매뉴얼 및 홍보영상 제작
2021	- 과제명 : 중앙도서관 지식정보센터 플랫폼을 위한 공간 구축 공모전 - 세부과제 • 중앙도서관 1층 서편 리모델링 • 서고공간 리모델링: 열람공간, 사인시스템 • 휴게공간 조성 : 야외 휴게실 • 중앙도서관 UI(User Interface) 디자인 설계

2022	<p>- 과제명 : 중앙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공모전</p> <p>-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과 연계한 북큐레이션 • 셀프스튜디오의 기자재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홍보 •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2023	<p>- 과제명 : 미래도서관 설계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이용사례 공모전</p> <p>-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도서관 설계를 위한 공간 활용의 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영상 제작 • 전자도서관 플랫폼 개편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영상 제작 •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시설), 콘텐츠, 책, 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SNS 공유

▣ 프로그램 성과

도서관의 현안 문제를 프로젝트의 과제로 공모함으로써 학생과 소통하며 이용자 중심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의 미래도서관 설계로 대상을 받은 시나브로팀은 중앙도서관/독서클럽 UI 개편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혁신 성과 확산 포럼에 “도서관 콘텐츠의 인문중심 DX설계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사례발표 함으로써 도서관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정보공유를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은 YouTube에 업로드하여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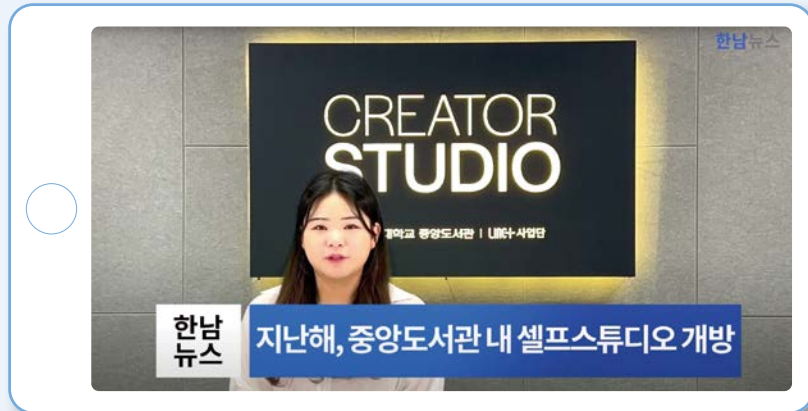
대 상
[시나브로팀]
미래도서관 설계
2023년



최우수상
[도서관을 살려조]
미래도서관 설계
2023년



[셀프스튜디오]
2022년



[도서관이용자교육]
2022년



[콜비]
2020년

[Live H]
매뉴얼



소통형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도서관, 얼마만큼 알고있니

1. 디지털기기에 대해 다운로드 해본 적이 있다.
2. 중앙도서관 이외에도 다른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안다.
3. 수업 교재를 도서관에서 찾아본 적이 있다.
4.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적이 있다.
5. 특수문화 매달라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
6. 한남대학교 특사출판물 알고 있다.
7. 한남대도서관 특사출판물 알고 있다.
8. 도서관 사서나 통풍기를 알아본 적이 있다.
9. 전자 전자 서비스 mooshin을 안다.

한남대학교 도서관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어문생활

소통형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알아두면 유용한 도서관 이용 매뉴얼

Step 01. 도서관 언제 이용가능할까?

- 학기 중 | 월요일~24시
- 방학 중 | 월요일~15시
- 휴관일 | 통풍기, 휴학기간

Step 02. 강의 자료는 도서관에서?

- 문학서적
- 전공관련 전문서적
- 외국어보통 시험 관련 분야의 국외서
- 지형도서

Step 03. 논문을 참고해 자료의 질을 높이자

도서관의 도서관정보시스템 부속물인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디지털콘텐츠 메뉴 시료를 검색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 사서들을 상담하면 상세한 관련 논문을 찾아준다.

Step 04. 더 스마트하게 도서관 이용하자

1. 도서 & 자료 검색 방법(한남대)
2. 도서관 내 위치 찾기 방법
3.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방법

Step 05. 차별과 제한 완화공부하는 그룹스터디룸에서

도서관 사서나 통풍기 부속물이 제공 학습공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이다. 도서관 홈페이지 - 통풍기 부속물 메뉴가 들어가 시료를 내어볼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 시 안내 데스크 사서를 통해 예약을 받고 싶다면 학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및 학과 모임 공간 가능하다.

Step 06. 그 밖의 도서관 이용 꿀팁들!

1. 사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중앙도서관(1000) 또는 한남대도서관(1000)에 전화하면 된다. 중앙도서관(1000)에 전화하면 사서들이 도와준다.
2. 강의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중앙도서관(1000)에 전화하면 된다. 중앙도서관(1000)에 전화하면 사서들이 도와준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뉴스토리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나만을 위한 맞춤형 운동 파트너! 한림대학교 Digital Gym



한승백

한림대학교 체육학과 /
한림 REC 센터
조교수 / 센터장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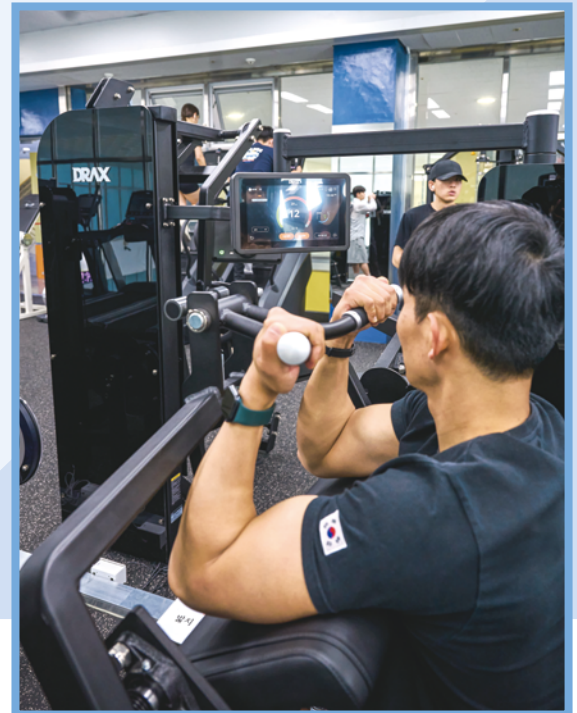
한림대학교 스포츠센터 내 체력단련실이 2024년 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짐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한림대학교는 디지털 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학내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짐의 구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신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재학생이 교양체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한림대학교의 시스템에서, 디지털 짐의 도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스마트 운동기구를 활용한 개인화된 운동 추적 시스템



▶▶ Digital Gym의 C-C-C Zone



추진내용

기존의 체력단련실 장비는 사용자가 운동 시 필요한 데이터를 수기로 기록해야 했지만, 디지털 짐은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추적하여 모바일 환경으로 직접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운동 기록을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센터 내 전문가에게 과학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한림대학교 디지털 짐의 가장 큰 특징은 C-C-C Zone으로 구성된 점이다. 개인의 신체 상태를 검사하는 체크업 존(Check-up Zone),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실시하는 맞춤 트레이닝 존(Custom Training Zone), 운동 결과를 평가하고, 운동 처방 및 방향을 조언하는 컨설팅 존(Consulting Zone)이 바로 그것이다. C-C-C Zone의 구축을 통해 한림대학교 디지털 짐은 종합적인 피트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 방법을 익히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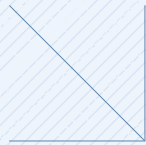
추진성과

디지털 짐의 구축은 더 많은 학생이 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림대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교양체육 수강생들에게 'Digital Gym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디지털 짐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짐을 통해 자신의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짐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디지털 짐의 도입에 따라 이번 학기 학생들의 운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센터에서는 이들의 운동 지표를 추적하고 있고, 향후 전체 학생의 체력과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짐을 통한 과학적 운동 관리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디지털 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앱을 통한 운동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운동 파트너!
한림대학교
Digital Gym



▲ 건강한 캠퍼스의 중심 디지털 짐

기대효과

한림대학교는 디지털 짐을 통해 모든 학생이 평생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짐은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체력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짐은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디지털 짐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운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은 활기찬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디지털 짐 구축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대학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정량지표의 발굴과 활용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운영)



이규재

한성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연구교수

한성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전공교육과정의 질관리를 위한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수 교육과정 발굴과 확산을 위한 관리체계로, 대학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지표화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량지표 중심의 단순한 제도이지만, 대학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지표의 발굴과 활용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에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대학에 한성대학교의 지표발굴과 활용 경험이 작은 아이디어라도 제공할 수 있길 바라며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의 운영 배경과 내용, 성과를 정리하였다.

① 정량지표 중심 제도운영의 배경

교육과정 자체인증 등 대학 교육과정 질 관리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성대학교는 자체인증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시행방안을 연구(2019~2020년)하였으며, 2021학년도에 이르러 우수 교육과정 발굴을 위한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

2021학년도 시범운영 단계의 적용 지표들은 자체인증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성평가 지표가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립(사회·산업수요 및 교육요구 반영, 교육목표 및 전공역량 설정 등), 교과운영계획(수업목표, 교과 및 연계트랙 로드맵, 전공역량 평가계획 등), 성과(트랙수요, 교육과정 성취목표 달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 지표였다. 한성대학교는 전공교육과정 품질관리위원회의 지표별 정성평가 결과(우수, 보통, 미흡)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성지표 중심의 평가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전체 트랙(전공, 학과)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트랙(전공, 학과)별로 다르게 배치된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트랙(전공, 학과)의 상대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성지표를 유지하면서 ‘우수사례 발굴’이라는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재정적 비용이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량지표의 발굴과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지표의 발굴, 제도운영 절차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표는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트랙(전공, 학과) 구성원의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한 지표여야 했다. 이 점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전임교원 충원률, 강좌당 인원수, 학생 1인당 교육예산 등은 대학 내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표로 적합하지 않았다.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성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할 만한 지표의 발굴이 필요했으며, 지표의 발굴을 위해 교내에서 관리하는 정량자료를 검토하고 교내 전공 교원을 중심으로 어떤 자료가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한지(적합도, 중요도) 조사하였다. 전공 교원들은 산학협력 교과 운영,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개편과 같은 산학연계 교육활동, 수업만족도, 전공역량 매칭 교과의 학생자기평가(전공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요 지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수 교육과정 발굴을 위한 주요지표(1~5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산학협력 교과 비율	트랙/전공/학과 개설 교과 수업만족도 평균	전공역량별 매칭 교과의 학생자기평가 점수 평균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개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수

순위	지표	중요도(5점만점)
1	산학협력 교과 비율	4.09
2	트랙/전공/학과 개설 교과 수업만족도 평균	3.92
3	전공역량별 매칭 교과의 학생자기평가 점수 평균	3.91
4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개편	3.88
5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수	3.83

교원 대상 조사결과가 반영된 최종 지표는 매년 작성되는 트랙(전공, 학과) 교육과정 품질관리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지표와 제도운영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 지표와 운영 절차]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 지표	
범주	우수 교육과정 발굴 지표
교육과정 개선노력 (직전3개년 자료)	교육목표 달성, 전공역량 함양을 위한 자체 진단에 따른 개발·개편 건수
	사회·산업 수요에 따른 개발·개편 건수
	학생 수요에 따른 개발·개편 건수
	교육과정 운영개선 지원 사업 참여
교육 과정 운영	대학권장 교수법(FL, PBL, TBL) 활용 교과수
	산학연계 교과목 수
	융합교과 및 융합전문과정 개발 및 운영
	서비스러닝 교과 운영 여부
교육과정 운영성과	트랙/전공/학과 개설 교과 수업만족도
	트랙/전공/학과 전공교육 만족도
	전공역량 매칭교과의 학생자기평가 점수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운영 절차	
품질관리 절차 준비	① 전공교육과정 품질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② 전공교육과정 품질관리 위원회 구성
	③ 품질관리 지표 개선 및 확정
품질관리 지표확인·분석	④ 지표별 평가자료 확인 및 분석
	⑤ 분석결과에 따른 우수성 평가의 적합성 확인
우수교육과정 발굴·공유	⑥ 정량지표 중심 우수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⑦ 우수 교육과정 사례 심층 조사*
	⑧ 우수 교육과정 공유 확산
	⑨ 제도운영 및 지표 개선 의견 수렴

* 정량지표 기준으로 발굴된 우수사례의 공유를 위한 추가 조사진행(우수 지표 중심의 운영 성과, 운영상의 문제와 극복, 개선사항 등)

③ 제도운영의 유의점과 정량지표 한계의 보완

제도운영을 준비하는 동안 동일한 정량지표 중심의 제도운영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첫째는 학문적 특성으로 인한 단과대학 간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였다. 인문·예술계열 트랙(전공, 학과)의 경우 공학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트랙(전공, 학과)에 비해 산학연계 교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우수사례 발굴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점수 결과에 따른 트랙 간 서열화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사례의 확인은 단과대학별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체 총점 기준이 아닌 범주 및 주요 지표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공유는 정량지표 값의 공유가 아닌 우수지표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추가 조사하여 공유하도록 하였다.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운영 절차 중 '⑦ 우수 교육과정 사례 심층 조사'는 이를 위해 진행한 것이었다.

④ 제도운영의 성과

'한성교육과정 품질관리 제도'는 대학내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에 초점을 둔 제도이다. 설정된 지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해당하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개별 트랙(전공, 학과)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3학년도에 진행된 공유 워크숍에서는 산학연계 교과운영, 대학권장(학습자 중심) 교수법 활용,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가 주요 공유사항이었다. 제도운영과 공유내용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공유활동이 '타 단과대학 및 타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4.57)와, '소속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과 향후 운영'(4.65)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제도의 취지가 일정 부분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지표의 발굴과 보완, 적극적 공유활동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안정적 체계로 안착되길 기대한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K-프로젝트

“모두가 걷고 싶은 보행환경 만들기”



김시현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4학년

저는 강남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된 교수 제안 프로그램 K-프로젝트 중 부동산건설학부 김선영 교수님이 설계한 “모두가 걷고 싶은 보행환경 만들기(리빙랩)”란 주제로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학년때 도시공학에 관심을 두고 교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전공뿐만 아니라 학업과 관련된 진로 등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K-프로젝트는 전공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도, 주도적 참여 기회, 그리고 학점 인정까지 참 끌리는 프로그램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저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K-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또 팀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인 만큼 소극적이었던 저의 평소 학업적 태도도 극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어 학업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획이나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험과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관련 전공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 수인분당선 기흥역 주변 현장 조사 및 팀 활동



▲ 용인시 마을실험실 워크숍 참가



▲ 2023.12.19.~12.20. 용인시산업진흥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캡스톤 디자인 전시회 참가



▲ 2023.12.19.~12.20. 용인시산업진흥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저에게 K-프로젝트 활동은 학업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한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의 지도 아래 부동산건설학부에 재학 중인 5명의 팀원들이 기흥역 보행공간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흥역은 행정구역상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하며 수도권 전철인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의 전철역이자 환승역으로 평소에도 수도권 직장인들 및 용인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전철역입니다. 교수님과 저희 팀원들은 매주 만나 아이디어 회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직접 대상지를 파악해 가며 연구하고, 전철 이용자나 역사 관계자 분들과 미팅하며 기획하는 등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일궈내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용인시 지역 현안 문제해결 사업 리빙랩 워크숍에 참여하여 대상지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다져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모두가 걷고 싶은 보행환경 만들기’ 프로젝트는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 주변 학교 셔틀버스(달구지)나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등을 타기 위한 줄과 다른 보행자들과의 충돌, 무분별한 PM(Personal Mobility)의 주차로 인해 생긴 보행환경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개선 방안까지 도출한 리빙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 학교 등하교 시 기흥역을 오가며 느꼈던 일상 속 불편함을 직접

개선해보고자 했던 K-프로젝트 활동 자체가 큰 의미로 와닿고 모든 활동이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은 도시계획의 소프트웨어적 개념의 활동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뒤늦게 재학 중 전공을 바꿔 아직 도시공학전공에 대한 감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전공 활동과 경험이 부족하여 학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번 K-프로젝트를 통해 교수님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으로 얻은 실무 경험은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으며 전공과 더욱 친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프로젝트 프로그램 개요

강남대학교 K-프로젝트는 기존의 교수자 주도 수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체 및 지역사회 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지도교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한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학생과 지도교수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프로젝트 또는 교수 연구 과제를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융복합 전공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 학생 제안 프로그램

학생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프로젝트를 3~6인의 팀을 구성하여 1인의 지도교수 지도하에 한 학기 10주간 (100시간 이상) 팀 활동 수행

학생 제안유형	프로그램 세부내용	
연구개발형(URP) ¹⁾	일반연구형	학생이 설계한 과제 또는 교수 연구 과제를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Wel-Tech융합전공과 부합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행
	SW연구형	비즈니스 게임,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앱 개발 등의 프로젝트 수행
창작형	문화·예술분야의 공연, 전시, 영상제작, 문예창작 등의 프로젝트 수행 프로그램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	
자율형	자유 주제로 학생이 설계한 프로젝트 수행	

1)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 :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교수 제안 프로그램

본교 교수가 설계한 프로그램 또는 연구 과제를 학생들이 선택하여 신청한 후 지도교수 지도하에 한 학기 10주간(100시간 이상) 팀 활동 수행

교수 제안 프로그램 키워드	세부내용
혁신(Innovation)	기존 15주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혁신적인 주제
자기 주도(Self-learning)	학부생의 자기 주도적, 자율적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강화
실무 역량(Working-level)	사회 요구, 산업 트렌드에 기반한 실무적 역량 강화
교육(Education)	지도교수 및 팀 활동을 통한 교육적 성과 기대

프로젝트 유형별 지원 사항

학생 제안 프로그램	교수 제안 프로그램
학생 활동비 1인당 200,000원 (팀당 최대 1,200,000원)	팀당 최대 1,200,000원

프로젝트 활동 종료 후,
지도교수 평가와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점 취득
(선이수 후 3학점 인정, Pass/Fail 학점)



K-프로젝트
강남대학교

학생제안프로그램
학생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프로젝트를 3~6명의 팀을 구성하여 1명당 지도교수 지도하에 한 학기 100시간(100시간 이상) 팀 활동 수행

교수제안프로그램
본교 교수가 설계한 프로그램 또는 연구과제를 학생들이 선택하여 신청한 후 교수 지도하에 한 학기 100시간(100시간 이상) 팀 활동 수행

모집분야 학생제안/교수제안프로그램

지원대상 3학기 이상 수료(4학기 이상 등록) 학부 재학생 중 학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자

모집기간 ~2024.02.20(화) 까지

지원서류 2024.03.04(월) 부터

지원방법 모집분야별 신청서 작성 후 KNU.창의융합교육센터 제출

주관: 강남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본관302호) ☎ 031-280-3192

학생사례

Student case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민재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광고홍보학과 4학년



▲ 대선주조 연인 편, 취업 편 등 CM을 촬영 중인 동서대 학생들

대선주조와 진행하는 CSR 캠페인은 4학년 마지막에 나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지 하는 다짐을 가지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부산 대표 기업인 대선주조에서 부산 시민들을 위한 사회 공헌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 가슴 떨리는 일이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준 학교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4년간 학교를 함께 다닌 18학번 친구인 이기호 학생과 황예연 학생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대선에서 출발하여 마인드맵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대선이 부산 시민들을 위한 주류회사로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구체화하기 시작했던 캠페인은 총 3가지였습니다. 1) 길 잃은 양 캠페인 2) 한국의 원샷 문화 캠페인 3) 세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쉽고 재밌는 주도 문화 캠페인을 위주로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를 가졌습니다. 구체화된 아이디어는 교수님께 컨펌 단계를 위한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창의성과 현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피드백과 아이디어 구체화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개의 아이디어 중

2번 아이디어로 컨펌을 받고 경쟁 PT를 위한 PPT 제작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위한 메인 카피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민 끝에 ‘다 함께 원샷’이라는 카피를 메인 카피로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메인 컨셉으로 우리나라의 술 문화에서 원샷을 즐겨 하는 문화가 존재하였고 이것으로 많은 양의 술을 원치 않게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샷의 문화는 바꾸기 힘들었고 넋지스럽게 원샷은 유지하고 분위기도 유지하되 술을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을 대선주조가 도와주면서 대선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향상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초기 프로토크 단계의 절주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확산 단계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술 가게에서 절주잔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매체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소비자 접점에서 술집 포스터와 SNS 이벤트, 냉장고 배너광고도 제작하였습니다.

경쟁 PT에서 활용될 PPT를 만들면서 여러 디자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고주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캠페인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샷은 과거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던 문화였으며 이런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관심을 끌면서 아이디어 설명을 프로토타입으로 보여드리며 빠르게 파악하게 하였고 캠페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직접 술집에 포스터를 붙여가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광고주와 소통하는 법과 경쟁 PT에 임하는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선주조와의 협력 소식이 뉴스 릴리스되면서 학교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쟁 PT에서 승리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대선주조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역량 (아이디어 도출, PPT 제작, PT 능력)을 총동원하여 실제 업무에서 진행되는 경쟁 PT를 체험할 수 있었고 경쟁 PT에서 승리하여 아이디어가 팔릴 때는 짜릿한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주조에서 캠페인 진행 방향을 전환하면서 저희의 캠페인은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와 메인 카피까지 준비해둔 상황에서 광고주의 갑작스러운 말로 캠페인이 엮어졌을 때 큰 슬픔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좌절은 나중에도 겪을 일이라며 팀원들을 다독이며 다른 캠페인 주제를 아이디어션 했습니다.

이번에 대선주조에서 빈용기 우수회수주체 포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빈 병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영상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자칫하면 설명적인 광고 영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한 대선주조에 관심을 가지게 할까에 대해서 팀원들과 고민하였습니다.

이후 마셨던 소주가 빈병 재활용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병은 비어가면서 스토리가 가득 찬다’라는 컨셉과 함께 다시 만난 소주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별한 연인에 관한 이야기의 스토리와 취업 준비생의 공감적인 스토리를 담은 광고가 기획되었습니다. 빠르게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며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 대선주조 취업 편 CM 장면

시리즈 A의 스토리는 불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의 술병이 다시 돌아와 합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마시는 술병과 같은 술병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빈병 재활용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 갔습니다. 샷을 하나씩 정하면서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감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지 영상 연출적인 부분을 고민하며 '그 날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 돌아왔다' 라는 매력적인 카피를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영상의 압축적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리즈 B는 헤어진 연인과 마셨던 술에 대한 추억의 요소인 호빵을 활용하여 헤어진 여자가 습관적으로 마시던 술을 헤어진 남자도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점에서 빈병 재활용에 스토리를 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헤어진 그녀와 다시 만났다'라는 메인 카피로 스토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땐 영상 기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우와 합을 맞추지 그리고 장소를 대여하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의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의 지원금으로 배우와 장소 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 대선주조 연인 편 CM장면

아니라 촬영에 필요한 장비 대여도 지원받아 촬영을 더욱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만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언제나 프로젝트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였고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4학년 마지막의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학생의 신분에서 풍족한 지원으로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의 광고가 오직 저희의 힘으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와 끊임없는 지원을 해준 학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뉴스에 나오며 조금 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나 자신이 대견스럽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이전 어엿한 광고인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위축되지 않을 만큼 좋은 프로젝트를 하게 해준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학생의 성장을 위한 서포터즈 '유니콘'



원소정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코로나 시기에 입학했던 나는 대면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학점 관리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톡톡(Talk Talk)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멘토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유니콘'이라는 서포터즈 활동을 추천해 주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한 학기 동안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니콘 활동을 통해 내가 대인 관계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임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 시야를 넓히고 더 외향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여자로 시작했으나 점차 활동에 더 깊이 관여하면서 학생 중심의 기획 활동을 주도하는 경험을 했다.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 유니콘 단체사진



유니콘 찾아가는
홍보부스 포스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다음 기수 운영진에 지원했고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우리는 부스와 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험 기간을 활용하여 교내 곳곳에 부스를 설치하였고 직접 학우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장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카드뉴스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 내면서 더 큰 의욕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교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프로그램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글말스쿨'의 프레젠테이션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이 활동이 프로그램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활동일지에 제출한 피드백이 반영되어 다음 회차에는 더 많은 실습 시간을 포함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니터링 활동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했다.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



▲ 카드뉴스

이 활동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대학생활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경험은 사회로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나는 유니콘에서 배운 책임감과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의 홍보 활동을 통해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활동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유니콘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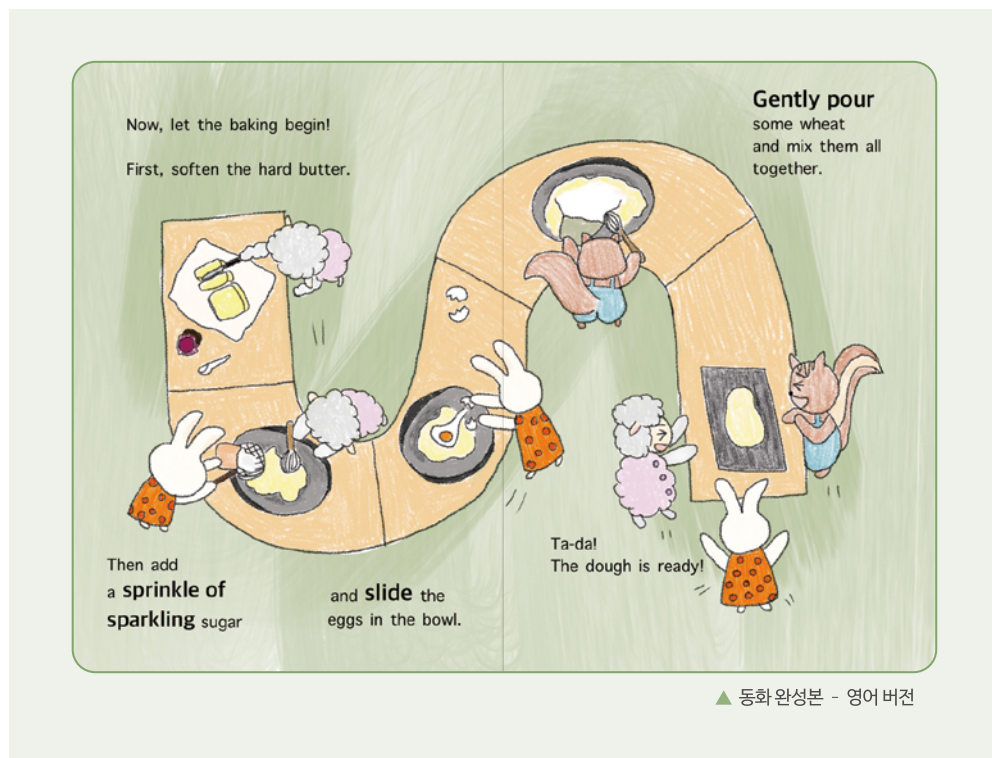
자기주도학습, 혼자서는 어렵다



김희진

한국의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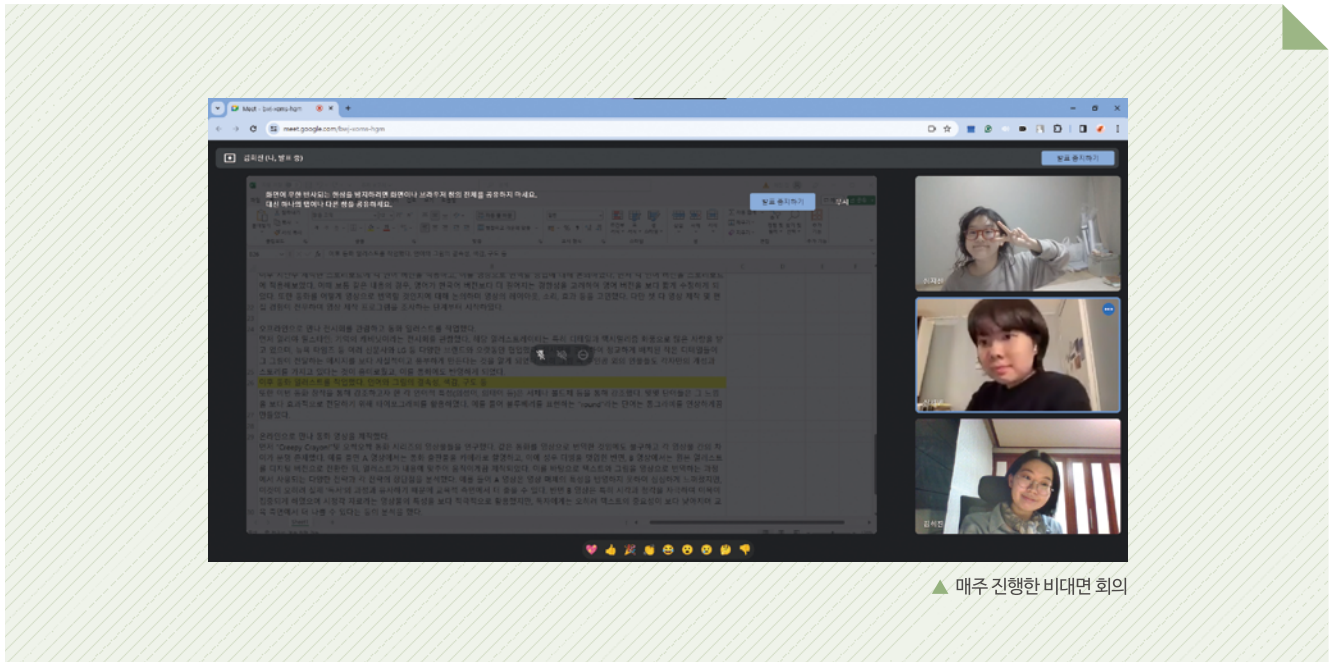
지난 겨울방학, 졸업을 앞둔 나는 재학생 신분으로 HUFStudy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비교과 프로그램은 세 명 이상이 그룹을 맺고 자유롭게 학습 주제를 선택하여 공부하도록 돕고 교수님의 컨설팅과 스터디그룹 지원금까지 제공한다. HUFStudy에 참여하여 줄곧 생각해 왔던 영어 동화를 창작하기 위해 팀원을 모집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나와 팀원들은 머지않아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총 두 차례 교수님과의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컨설팅에서 활동계획서가 다소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다는 평가를 받고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영어 동화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많았지만, 나와 팀원들 모두 영어 동화를 실제로 제작해 본 경험은 없었다. 아이디어 실현 단계를 구체화하지 못했고 초반 단계부터 큰 산을 만난 기분이었다.

영화 동화 제작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나와 팀원들은 당황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바로 구글 미트를 통해 팀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지만, 매주 각 팀원이 해올 수 있는 분량을 정해가며 몇 시간 만에 프로젝트의 기본 틀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에서 받은 교수님의 조언도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에도 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생 해본 적 없는 역할을 자주 맡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팀 활동에서는 언제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팀원이었지만, 이번에는 팀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며 제시된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나와 팀원들은 동화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의욕과 아이디어가 넘쳤다. 서로 계속해서 소통하며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기에 한 번 회의하면 두세 시간은 기본이었고 덕분에 우리 카톡 방은 새로운 메시지를 알리는 알림이 끊일 일이 없었다.



활동계획서를 대폭 수정했던 것 이후는 순탄하게 진행된 편이었다. 우리 팀은 동화 창작을 목표로 만들어진 팀이었지만, 그에 더해 동화 번역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팀원 셋 모두 영어대학 소속이었고 영어통번역 관련 수업을 수강하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통번역학을 배운 학생들로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와 분야의 번역을 경험하며 앞으로 통·번역사에게 요구될 능력을 갖추고 싶었다. 예를 들면, 최근 떠오르는 웹툰 및 게임 등의 미디어 번역 시장에서는 “아이처럼” 다채롭게 언어를 표현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번역사들도 의성어 및 의태어 등의 언어적 요소들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다. 영어로 다채롭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은 보통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때 자연스럽게 습득되기에 비영어권인으로서 큰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동화라는 장르의 보통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가 단순하면서도 창의적이고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기에 우리는 동화 창작 경험을 통해 다채로운 영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에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을 돌아다니며 인기 아동 동화 중 영어판과 한국어판이 둘 다 있는 동화책을 모아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및 영어판의 동화를 작성하고, 그림을 삽입한 뒤 각 동화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했다. 팀원 모두 동화 삽화나 영상을 창작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HUFStudy 프로그램의 스터디그룹 지원금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동화책

**HUFStudy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구매뿐만 아니라 그림 연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유명 동화 작가 전시회 입장료, 집이 멀어 학교에서 만나기 어려운 팀원들이 만날 장소, 영상 편집 및 연출에 사용된 음악 등의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모두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HUFStudy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약 30만 원의 금액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볼 기회를 얻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HUFStudy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교수님의 컨설팅과 스터디그룹 지원금을 통해 우리 팀은 계획했던 대로 영화 동화를 창작하고 번역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HUFStudy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에 와서야 적성에 맞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자기주도학습의 재미를 깨달았다. 그러나 대학생활 나름의 한계가 있었는데 치열한 수강 신청, 교수님의 교과 커리큘럼, 조별 과제와 학점 관리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진로를 위한 공부는 기약 없이 미뤄두어야 할 때도 많았다. 동계방학 중 HUFStudy에 참여하여 팀원들과 주도적으로 영어 동화를 제작했던 경험은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상외로 큰 노력을 수반해야 했고 새로운 경험들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재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실패를 걱정하지 않으며 도전할 기회를 누린 것은 분명 행운이었다. HUFStudy 프로그램 최종 결과 보고에서 우리 팀의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인정을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는 이번 경험을 살려 글로벌 아동 콘텐츠 창작 관련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과 학습 외의 분야에서 공부하며 성장하고 싶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은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 '로렌 차일드: 요정처럼 생각하기' 전시회 관람



▲ 동화 내용 및 일러스트 연출 관련 오프라인 회의 차례대로 신세빈, 심지선, 김희진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움 “용인시 SMART WELFARE CITY”



박소임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교수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와 Wel-Tech ICC 공동 주관으로 지난 5월 10일(금) 강남대학교 우원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용인시 SMART WELFARE CITY”를 주제로 전 세대를 넘어 모든 용인시민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고, 편안한 주거와 행복한 여가를 누리도록 융합복지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적 통합 플랫폼 도시를 향한 구체화된 구현 방향과 미래전략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행사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형 스마트복지도시 조성’에 있어서 실제 정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산·관·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 일반 시민, 그리고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스마트복지도시 구현 사례나 연구 결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며 용인시 스마트복지도시 미래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강연에 앞서 심포지움에 참석한 강남대학교 윤신일 총장은 “강남대학교가 복지와 ICT융합을 선도하는 융합복지기술의 연구발전과 지역사회 스마트복지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과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 2024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움 강연

심포지움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강남대학교 Wel-Tech융합전공 서상목 교수(국제스마트복지센터장, 前. 보건복지부장관)는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의 정책화 및 제도화 지원을 위한 용인시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심포지움 강연자 김수완 교수(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장)는 ‘용인시 스마트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성’, 서종건 위원(용인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복지도시의 필요성’, 이동훈 위원(용인시산업진흥원 수석전문위원)은 ‘스마트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날 심포지움의 진행을 맡은 박소임 교수(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는 ‘스마트복지도시의 실 이용자와 연구자가 함께하는 협력적 플랫폼의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제가 마무리되었다.



▲ 2024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움 패널토론

한편, 심포지움 좌장인 임정원 교수(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장, Wel-Tech ICC 센터장)를 중심으로 백남철 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중 대표(에너지인 코퍼레이션(주)), 박종근 상무이사(아바드(주)) 등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용인시 SMART WELFARE CITY의 구현방향과 미래전략’이란 주제로 이루어진 발제와 관련하여 국가 도시 발전계획과 기술분야의 기능 강화, 각 스마트복지도시의 전략적 연구사례, 기술을 활용한 복지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임정원 좌장은 “시민 전체가 건강과 돌봄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기술 기반의 스마트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과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이날의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이 밖에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 실버산업학과 홍승연 교수,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이혜준 교수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원, 국제스마트복지센터, 한국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번 심포지움은 2016년 제1회 주민행복 복지기반 도시재생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연례 학술행사로써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으며 특히, 복지기술의 지역사회 확산과 융합기술 생태계 조성에 주목하면서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움’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용인시
SMART
WELFARE
CITY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강남 NEW VISION 2025+」의 일환으로 특성화 융합전공 교육의 심화를 통해 지역상생가치의 실현을 위한 학생 참여형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Wel-Tech 리빙랩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과의 상생 기반 산·관·학·연의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 지역사회 공헌과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미래 융합기술 생태계 조성 등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이다.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엄은 매년 5월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합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합연구소 홈페이지(<https://iwcr.kangnam.ac.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4 SMART WELFARE CITY
2024. 05.10(Fri) 13:00-16:00 우원관 국제회의실공통주관: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합연구소, Wel-Tech, ICG

이름	직책	소속
김수원	기조 강연	서강대 강남대 석좌교수 Wel-Tech융합연구소 국제스타트 업사업담당 미래복지융합연구소
김수원	발표1	김수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융합대학 학장 강남대학교
김수원	발표2	서종현 부연구위원 울진시청연구관
김수원	발표3	이동훈 수석위원 울진산업진흥원 미래도시산업경영자MD 한국노년복지사업담당
김수원	위원장	이동훈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래복지융합연구소장 강남대학교
김수원	초청 객원	박남철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술기술연구원 미래스타트업담당

/ 용인시 SMART WELFARE CITY /
세대를 넘어 모든 용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편안한 주거와 행복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하는 기술 혁신의 통합 플랫폼 도시의 비전과 방향성 모색

/ 프로그램 일정 /
· 용인시 스마트복지도시의 방향성
·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복지도시의 필요성
· 스마트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기업주최: 권오중 대표 (주) 에이치인코퍼레이션
· 박종근 상무 (주) X0비즈

/ 신청방법 /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및 QR CODE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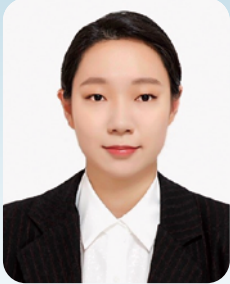
2024 SMART WELFARE CITY
2024. 05.10(Fri) 13:00-16:00 강남대학교 우원관 국제회의실공통주관: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합연구소, Wel-Tech, ICG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3:00~13:15	등록	윤관인 / 현장등록
13:15~13:20	행사 소개	박소담 교수 (진행)
13:20~13:30	축 사	이상일 용인시장 윤신일 강남대 총장
13:30~13:40	기조 강연	서종현 석좌교수 Wel-Tech융합연구소
13:50~14:20	용인시 스마트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성	김수원 복지융합대학장
14:20~14:50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복지도시의 필요성	서종현 용인시청연구관 부연구위원
14:50~15:20	스마트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이동훈 울진산업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부행차)
15:30~16:00	폐회 토론	위원장 이상일 용인시장 박소담 한국전술기술연구원 권오중 대표 에이치인코퍼레이션 (주) 박종근 상무 X0비즈 (주) 인발표지인 (총 6인)

문의 / 사전신청: 미래복지융합연구소 박소담 교수 sohpark@kangnam.ac.kr

▲ 2024 융합복지기술 심포지엄 포스터

2024-1 속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단 부스 참여



문정은

속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

속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은 2024-1학기 속명행복성장주간 부스 행사에 참여했다. 속명행복성장주간은 행정부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하게 되었으며, 대학혁신 퀴즈 및 재학생 수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학혁신 퀴즈는 25개의 보기가 제시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맞춰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교육혁신단, 법학전문도서관 리뉴얼, 글로컬마케터 비기너 과정 등 학생지원 프로그램 25개를 퀴즈판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학생 수요 설문조사에서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항목(만족도가 높거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순위)에서는 1위가 법학전문 도서관 환경개선, 2위가 스노우버스 2.0(메타버스) 등 학생들과 접점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더욱 활발한 홍보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학생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요청 의견을 주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학생 중심 프로그램인 속명행복성장주간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 필요한 지원 등 수요자 조사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24-1
 속명행복성장주간
 부스행사 진행 사진





2024-1
숙명행복성장주간
부스행사 홍보
포스터 및 대학혁신
퀴즈판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1 숙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세요!

대학혁신 QUIZ

1

2

3

대학혁신 퀴즈 정답 확인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1 숙명행복 성장주간 **2** 눈송이 그림책 수령하기 **3** 설문조사 참여하고 눈송이 수건도 받기

- 일시 : 2024.04.30(화) 10:00 - 16:00
- 장소 : 순현관 광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대학혁신 QUIZ!

1 학생교육 혁신단	2 스노우버스2.0 (메타버스)	3 법학전문 도서관 리뉴얼	4 제2차학 눈송이 모토존	5 숙명사랑 연탄나눔행사
6 국제교류 프로그램 박람회	7 학생회관 AI JOB 스튜디오	8 글로벌마켓터 비기너 과정	9 학생경력 개발시스템 SNOWAY 운영	10 숙명행복 상담센터 (학생상담지원)
11 숙명행복 성장주간	12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회	13 창업지원 프로그램 (WAVE+)	14 도서관 전자책 EBOOK, 오디오북 구입	15 연계기관 활성화 지원
16 학생실험관 강화 (학생자율 설계전공 등)	17 유학생 대상 글로벌 프로그램	18 숙명여대 자·산·학 EXPO	19 학부교육 실태조사 (K-NESS)	20 학생회관 설감홍 환경개선
21 진리관 모인법정 환경개선	22 책 읽는 속경인	23 학습공동체	24 장래학생 유계공간 조성	25 대학편 특성화 장학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조선대 박물관 상설전시 ‘박물관, 과거를 열다’ 개막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김지희

조선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추진배경 및 목적

조선대학교 박물관이 상설전시 ‘박물관, 과거를 열다’를 4월 25일 개막하였다. 조선대 박물관이 개관 30년을 맞아 상설전시실을 전면 개편하고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이다.

상설전시 개편을 통해 호남 지역에서 발굴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역사시대의 유물을 전시하는 한편, 그간 기증, 구입 등을 통해 수집한 도자, 문헌, 민속, 학교사 유물도 전시한다. 기존 상설전시가 선사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된 것과는 달리, 여러 시대, 여러 분야의 유물을 종합 전시함으로써 구석기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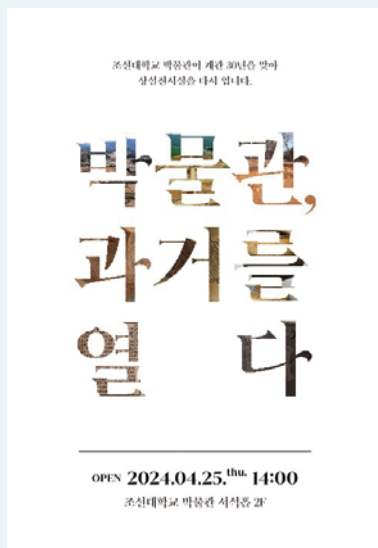
이번 개편은 조선대 박물관이 유적 발굴, 유물 연구 중심의 박물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대 박물관에서는 올해 5월부터 호남 고고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문 강연을 진행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시 유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조선대 박물관은 학생, 교직원, 지역민과 함께 하는 강연,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개막식 개요

- 행사명 : 박물관, 과거를 열다 상설전시실 개막식
- 일 시 : 2024년 4월 25일 14시
- 장 소 : 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 주 관 :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개막식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감사인사 및 실무자 소개	
14:10-14:15	개회사	· 김성한 조선대학교 박물관장
14:15-14:30	축사	· 전제열 조선대학교 부총장 · 박진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4:30-14:40	귀빈 소개 및 테이프 커팅식(10인)	
14:40-15:00	전시기획 설명 및 유물 소개	
15:00-15:35	케이터링(다과)	
15:35-15:40	개막식 행사 종료	



▲ '박물관, 과거를 열다' 개막식 초대장



▲ '박물관, 마음을 열다'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행사명 : 조선대학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마음을 열다'

- 세부 일정

① 인문강연 프로그램 (시간 12:00~13:50)

일자	강연명	강연자
2024.05.08.	호남 인류사의 시원과 조선대 박물관	이기길(조선대 명예교수)
2024.05.22.	호남지역, 청동기 제작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양수(국립청주박물관 관장)
2024.05.29.	거대 고인돌의 의미	강동석(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2024.09.11.	마한의 위세를 보이다.	김주호(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2024.09.25.	한과 삼한의 성립	박진일(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24.10.02.	죽은 이의 안식처, 옹관	이지영(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② 체험프로그램 (시간 14:00~16:00)

일자	세부 프로그램
2024.07.09.	나만의 정원, 신석기시대 테라리움 만들기
2024.07.11.	한국의 미, 청자 비누 만들기
2024.07.23.	전통을 담은 책과 도장 만들기
2024.07.25.	밤을 밝혀주는 사방등 만들기
2024.08.06.	나만의 정원, 신석기시대 테라리움 만들기
2024.08.08.	한국의 미, 청자 비누 만들기
2024.08.20.	전통을 담은 책과 도장 만들기
2024.08.22.	밤을 밝혀주는 사방등 만들기

- 대 상 : 지역민, 학생 등

- 참가비 : 무료



▲ 개막식 행사 사진



▲ 상설전시실 사진



박물관, 과거를 열다



▲ 인문강연 사진(2024.05.08.)



기대효과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문화 공간 조성
- 박물관 소장유물 전반에 대한 학술 자료의 확보 및 공개
- 학계와 지역민을 위한 소장유물의 체계적 활용 토대 마련
-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휴식과 성찰의 공간으로 탈바꿈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0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0호 (8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 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COVID-19 환경 하의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 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고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어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 안내

원고응모대상

- ▶ 대학혁신지원사업 117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 ▶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원고분량

- ▶ 성과사례 및 행사소식은 최대 A4 2매를 넘기지 않음
단, 기고문은 A4 2매 이내로 제한

행정사항

1. 제출자료: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2. 제출기한: 2024. 07. 12.(금) 18:00까지
3. 제출방법: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4. 제 출 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uispc@pusan.ac.kr)
5. 유의사항: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6. 문 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051)510-7905/7949

